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예수님
- 요 5:10~18

지난주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 성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소개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간 일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종교의 기대와 희망이었던 메시아의 도래, 약속의 성취를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베데스다 못가에 많은 불치병 환자들의 상황은 구약종교의 모든 것을 보여 줍니다. 구약종교는 목마른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출현으로 38년이나 되어 희망 없는 병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구약종교가 끝난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병자는 움직이고 걷고 뛰었습니다. 이것이 곧 응답이요, 복음입니다. 구약종교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끝났습니다.

유대 신앙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께서 "이 성을 헐라. 내가 삼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는 말씀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양의 문은 "내가 양의 문이로다"라는 말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많은 목마른 사람들, 불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리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라"는 말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구약종교는 막을 내렸습니다. 목마른 제사와 구원은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구약 창세기에 계속 '죽고 죽고 죽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마태복음에는 '낳고 낳고 낳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죽는 종교이고 신약은 사는 종교입니다.

'진리'를 유실한 형식종교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둠, 죄악, 사탄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은 베데스다 못가의 좋은 사건에 약간 예감이 좋지 않은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

병자가 일어나 걸어간 그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구약종교의 상징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대표됩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꼬투리를 잡아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은 복음서에 70번 정도 나타나는데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대적하고 핍박하고 죽이려는 사람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종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들로 구성되어 있고 당시에 영향력 있는 권력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힘을 모아 구약종교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잘못된 구약종교의 신봉자, 계승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은 그들에게 불편하고 당황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사람에게 진리처럼 불편한 게 없습니다. 유

대인들은 예수의 출현이 자신들의 존재 가치가 끝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막은 것입니다.
여기서 안식일이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이미 잊어 버렸고, 형식과 제도에 얽매인 날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자유케 하는 날로 여기지 않고 율법화, 종교화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의해 38년 된 병자가 살아난 사건을 기뻐하기보다 시비를 걸고 문제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38년 된 병자의 감격과 기쁨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권위 실추와 영향력 감소 그리고 신뢰하고 율법화된 구약종교가 상처받는 것에 대한 분노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11,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대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이 사람들은 누가 네 병을 고쳐줬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누가 왜 안식일에 걸어가라고 했느냐가 문제입니다. 즉 병이 나았으면 하루 더 있다가 일어나지 왜 안식일에 일어났느냐 하는 겁니다. 병자는 어떤 분이 자기를 보고 자리를 들고일어나 걸으라고 해 말씀대로 걷게 된 거라고 말합니다.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니 “그러면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병 고친 사람이 누구냐고 묻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범한 주범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 때나 지금이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형태는 똑같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종교의 허상입니다. 종교적인 형식과 율법의 제도로 인간의 본질과 자유를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는 모습들입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 되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
이 사람은 왜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몇 마디로 자신의 병을 고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몰려들므로 자리를 피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관심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영광, 칭찬, 인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럴 때마다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병이 오래된 불쌍하고 비참하며, 신세타령하고 팔자소관을 이야기하는 희망이 없는 한 영혼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제도, 방법, 권력, 인기 등에 관심이 몰려 있습니다. 도시 문명 속에서 죽어가는 소시민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권력의 틀에 의해 무참히 짓밟혀 가는 사람에 대해 별로 애정이 없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
사람이 많을 때 예수님이 뒤에 계시다가 사람의 행적이 뜸해지자, 다시 이 남자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났으리라 생각합니다.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만났습니다.

온전한 치유

치유 즉 병 고치는 것의 놀라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치유의 반에 해당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으로 역할이 끝난다면 의사나 별다를 게 없는 의료행위입니다. 인간은 정신과 영혼이 행복해야 합니다.

여기에 치유의 온전한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의사와 병원 근무자가 환자를 다루는 것은 반쪽짜리 치료에 해당합니다. 진정한 의사는 영혼을 치료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정신적,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 남자에게 다시 찾아와 두 번째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치유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육체적인 치유입니다. 둘째, 한 단계 높은 정신적 치유입니다. 방황, 좌절, 절망, 허무함 등에 해답을 주는 치유입니다. 셋째, 영적 치유입니다. 죄, 사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치유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치유를 위해 조용한 틈을 이용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 짓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질병의 원인

질병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연적 환경적 유전적인 이유로 병이 듭니다.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부모님의 유전으로 병이 들 수 있습니다. 환경적인 연유로 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요즘 구제역이 많이 나타나는데 발병 지역의 돼지들은 걸리게 됩니다. 즉 자신이 잘못해 걸린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플 수 있습니다. 특히 욥 같은 사람이 그런 경우입니다. 세 번째, 환자를 위해 기도할 때 환자의 병이 자신에게 이동하는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을 살려 주시고 저를 죽여주세요. 저 사람의 병을 저에게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병이 옮겨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남자에게 세 번째 경우를 적용하십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 대가로 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속히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능적으로 오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질병은 자신의 삶이 죄로 가득 차 있어 그 대가로 받은 경우입니다.

예수님은 이 남자가 죄 때문에 오랫동안 병을 가진 것을 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더 깊은 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영적 치유를 하셨던 것입니다.

질병의 성격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질병은 고난을 겪은 후 그 결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는 계기가 됩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질병을 가지고 사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물동이를 놔두고 정신없이 동네로 뛰어 들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쳤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전도법

마찬가지로 이 남자도 자신의 병을 고쳐준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다가 '다시는 죄 짓지 말라'는 말씀에 알고 보니 예수님이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유대인들에게 달려가 "그 사람 이름을 몰랐는데 예수라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전도의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의 병을 고쳐 주셨다. 이상하게 병이 나았다. 내가 그분

을 만났는데 희망이 생겼다. 머리가 맑아지고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것처럼 인생, 미래가 보이고 비전, 희망, 기대가 생긴다. 왠지 잠을 자려면 강물처럼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흘러넘치는 것을 경험한다. 알고 보니 그분이 예수님이셨다'고 말하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자신을 변화시킨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38년 된 병자의 전도법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하는 좋은 성도
예수 믿는 것이 참으로 좋은 일인데, 예수 믿는 사람을 벌레 보듯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억압, 어둠의 세력이 덮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읽고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고 병을 고쳤다는 이유로 핍박한 게 아니었습니다. 종교적인 계율, 형식, 율법, 자기들의 권위, 기득권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해답을 주셨는데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믿음이 잘 생기는 기도법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라고 하기보다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그게 입에 붙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셨습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하나이시며 동일시하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일하시고 주무시거나 노시거나 쉬는 분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하신다고 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가 태초로 이제까지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하신다는 뜻은 안식일에 쉬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일하는 것도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한 가지는 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쉬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일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 쾌락, 건강을 위한 일이 아니고 이웃을 살리기 위해 일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주일이 안식이 아니고 녹초가 되도록 일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일하는 것과 쉬는 것의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진정한 안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성도들은 주일에 예배드리고 병든 자, 가난한 자를 찾아가 도와줍니다. 저녁에 집으로 들어와 헉헉거릴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도와주는 것이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주일 일과 중 가장 잘못된 게 늦잠 자는 겁니다. 늦게 일어나 텔레비전을 보고 음식이나 먹는 것은 나태, 욕망, 쾌락을 만족시켜 주는 것 외에 아무 의미가 없는 짓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의 팽팽한 대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될 영적인 평행선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8년 된 병자가 일어난
감격과 기쁨과 환희가
우리에게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어나 뛰고 걸으며
외치고 찬양하는 축복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